

# 이원택, 취임 전부터 현안 해결 본격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 전북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 미래성장동력 확보 위한 전략사업 집중 논의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에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2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북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전략과 전북 발전을 위한 핵심 현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이성운·정동영·김의겸·박지일·이춘석·한병도·박희승·안호영 국회의원이 참석해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기획예산처 심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마련됐다. 국가예산 사업의 반영 여부가 사실상 예산심의 초기 단계에서 결정되는 만큼 정치권과 행정부 초기에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정부 부처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북의 주요 국가예산 사업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사업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정부 예산안에 전북 관련 사업이 최대



2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북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과 전북 국회의원들이 화이팅을 하고 있다.

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과 전북도가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당선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현장 수요와 현대자동차그룹 투자협약 후속사업,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들을 국가예산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타운홀 미팅 후속 핵심사업으로는 국립 익산식물박물관 건립과 푸드테크 대체식품 혁신클러스터 조성이 제안됐다.

또 현대자동차그룹 투자협약과 연계한 전략사업으로 협업지능 피지컬 AI

혁신캠퍼스 구축, 온디맨드 제조 특화 AX 인재육성 허브 조성, 중대형 상용차 전동화 전환 지원 기반 구축 등이 논의됐다.

민선 9기 핵심 공약사업으로는 새만금 K-푸드 수출허브단지 조성, 동화농민협 세계유산기록관 건립,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등이 주요 국가예산 사업으로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현대차 투자협약 후속 대응,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남원 국립화학전문제학원 설립 등 전북의 주요 현안 해결 방안

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전북 발전을 위한 압박 과제도 논의됐다. 이 당선인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 특별법, 험프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 새만금사업법 개정, 전북특별법 3차 개정 등 핵심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전북 발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며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의 주요 현안은 전북 전체의 미래가 걸린 과제"라며 "전북 정치권이 원팀이 되어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택 당선인은 "2027년도 국가 예산은 민선 9기 공약을 실제 사업과 재원으로 연결하는 첫 출발점"이라며 "전북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도민들이 삶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권과 행정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며 "전북의 뜻을 반드시 지켜내고 도민이 체감하는 성장으로 전북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 “군산의 미래, 이제 새로운 도약으로”

### 강임준 군산시장, 8년 시정 마무리 시민께 감사 인사 전

강임준 군산시장이 민선 7·8기 군산시장으로서의 임기를 마무리하며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강 시장은 퇴임에 즈음해 시민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지난 8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이자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 8년, 참 긴 시간이었지만 군산의 100년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아쉬운 시간이기도 했다"며 "기쁜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였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참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7기와 8기 군산시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셨던 그날의 무게를 지금도 잊지 못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믿음 앞에서 초심을 새기고 각오를 다지며 그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시정은 하루도 마음을 편히 놓을 수 없는 자리였다"며 "눈이 오고 비가 내리는 날은 물론 무더위와 한파가 이어지는 날에도

늘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고 크고 작은 재난과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시민 여러분의 걱정과 불평은 오롯이 제 책임이라고 생각했다"고 회고했다.

강 시장은 군산의 미래에 대해서는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기반을 다진 군산에는 현대차 9조원 투자 등 미래 신산업이 모여들며 새로운 희망과 성장의 길이 열리고 있다"며 "더 잘할 수 있었던 일들과 더 세심하게 살펴야 했을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은 남지만 군산의 미래를 위한 밑그림은 이제 분명하게 그려졌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산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는 저력이 있는 도시이자 서로를 아끼고 응원하는 따뜻한 공동체의 힘이 있는 도시"라며 군산의 성장 가능성과 시민들의 역량에 대한 믿음을 나타냈다.

강 시장은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이라는 직책은 내려놓지만 군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변함없이 우리 시의 더 큰 발전을 응원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모든 순간을 오래도록 가슴에 간직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만호기자

### 5극3특 메가시티 특위

#### 호남-제주 상생 방안 모색

민선 9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5극3특 호남·제주 메가시티 특별위원회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호남과 제주 간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행보에 나섰다.

5극3특 특위(위원장 허강무)는 28일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전시실과 추모관, 박물관 등을 둘러본 뒤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방문에는 허강무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공약한 '호남·제주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 가운데 문화·관광 분야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추모관에서 현화하며 동학농민혁명 희생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린 뒤, 황토현 전투의 현장인 황토현 전적지와 기념공원을 둘러보며 동학 정신의 현재적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는 전북의 동학농민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제주 4·3사건을 연결하는 '호남·제주 민주·평화 역사벨트(가칭)' 조성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특위는 각 지역의 상징적 역사 자산을 연계한 공동 학술연구를 비롯해 문화관광 루트 개발, 민주주의 교육 프로그램 교류 등 실질적인 상생 협력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했다.

/오만호기자

### 새만금청, 관세청과

#### 현대차 투자 지원 '맞선'

새만금개발청(청장 문성요)은 현대차그룹의 9조원 규모의 투자를 적기에 지원하고 새만금이 대한민국 지방주도 성장의 첫 번째 성공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세청(청장 이종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문성요 청장은 24일 새만금개발청에서 이종욱 관세청장과 만나 지난 5월 정부가 마련한 '새만금·전북 대혁신 테스크 포스(TF)' 종합지원계획의 후속 조치로 종합보세구역의 신속한 확대 지정과 관세 분야 기업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를 시작으로 새만금에 제2, 제3의 기업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종합보세구역의 확대 지정 등을 통해 세계 혜택을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오만호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4일 도청에서 김 지사 주재로 마지막 합동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김관영 도지사과 간부 공직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 김관영 도지사 “공정·정의, 책임행정의 최우선 기준 돼야”

### 민선 8기 마지막 합동간부회의 주제… 지난 4년간 도정 성과 공유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8기 마지막 합동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4년간 도정 성과를 되돌아보고, 공직사회의 핵심 가치인 공정과 정의에 기반한 책임행정을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4일 도청에서 김 지사 주재로 마지막 합동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선 8기 동안 추진해 온 주요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도정이 지향해야 할 행정 가치와 공직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 지사는 회의에서 “우리는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전북의 변화를 현실로 만들어냈다”며 “지난 4년 동안 낮은 것이 헌신해 준 실·국장과 공직자,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도정의 작은 성장 스토라들이 차곡차곡 쌓여야 전북 전체의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다”며 “성과가 좋은 정책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꼼꼼히 보완해 빈틈없는 도정을 이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김 지사는 공직자의 권한 행사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정의가 최우선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현장 중심 행정의 중요성도 거듭 언급했다.

이번 회의는 민선 8기 도정의 마무리와 함께 공직자의 책임과 역할을 재확인하는 자리로, 김 지사는 도민 중심의 공정한 행정과 현장 중심 정책 추진을 차기 도정에도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오만호기자

## 전교조 전북, “전주미산초 악성민원인 엄벌하라”

### 교사·시민 4308명 탄원 동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전주미산초등학교 악성민원인에 대한 엄중 처벌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미산초 악성민원 사건과 관련하여 전국 교사와 시민 4,308명이 참여한 엄벌 촉구 탄원서를 검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2025년 8월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교조 초등위원회가 악성민원인 2명을 무고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발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1만4,208명이 참여한 엄벌 촉구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후 전북교육청도 같은 해 10월 해



당 민원인들을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올해 6월 일부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16일부터 8월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교조 초등위원회를 대상으로 엄벌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한 결과 일주일 만에 4,308명이 참여했으며, 검찰에 전달할 의견을 묻는 서술형 문항에는 3,27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탄원에 참여한 교사들은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 “악

성민원인으로 인해 학교가 두려운 공간이 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했다.

오도영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전주미산초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현장의 교사들이 큰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며 “교사 보호 없이는 정당한 교육활동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교육감 대리 고발 사건에 대한 신속한 기소 결정 △승용차 전 교사에 대한 SNS 명예훼손·모욕 사건 엄중 처벌 △악성민원인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등을 검찰과 국회 교육부에 요구했다.

/오상근 기자

## 전주, 산업AI 신뢰성 허브 도약

### 하정우 전 靑 AI 수석, 전주시장직 인수위 초청 특강

#### “피지컬AI 안전·신뢰 체계 세계 표준 선도 가능”

#### AI 보안 레드팀센터 등 집적화 AI 테스트베드 구축 제시

민선 9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인 시민주권 열린 전주 위원회가 인공지능(AI) 분야 최고 전문가인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초청해 전주의 미래 성장전략으로 제시된 '피지컬 AI 특별도시' 비전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민주권 열린 전주 위원회(위원장 안국찬)는 24일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대회의실에서 하정우 전 수석 초청 특강을 열고 '시민을 위한 AI 대전환 전주 모두를 위한 AI 특별도시'를 주제로 AI 산업의 미래와 전주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강연에서 하 전 수석은 AI 기술 발전이 가상공간 중심의 데이터 분석 단계를 넘어 실제 물리적 환경을 자율적으로 제어하는 '피지컬 AI'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AI는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공정을 최적화하는 AI 에이전트 단계에서 AI 지능과 신체가 결합해 자율적 물리 동작을 수행하는 휴머노이드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주를 중심으로 완주, 김제, 새만금 등 인근 지역과 역할을 분담하는 광역적 산업 생태계 구축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전주가 전북 AI 산업의 중심축 역할을 맡고 주변 지역이 각자의 강점을 살리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광역 차원의 큰 그림 속에서 전주의 역할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하 전 수석은 전주의 미래 전략으로 글로벌 표준 인증 아카데미와 AI 보안 레드팀 센터,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센터, 로봇 피지컬AI 안전 실증랩, 산업 AI 신뢰성 평가센터 등을 집적화해 세계적인 AI 테스트베드 도시를 구축하자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는 조지훈 전주시장 당선인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피지컬AI 특별도시' 전략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행정 분야의 AI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하 전 수석은 “행정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재설계하고 AI 에이전트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민원 AI 비서와 같은 서비스를 우선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조지훈 전주시장 당선인은 “전주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뜻깊은 강연이었다”며 “피지컬 AI 특별도시 조성을 위해 공직자와 시민들이 함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가까운 시일 내 하 전 수석을 다시 초청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사는 앞으로 AI 신뢰성과 안전성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아 산업용 AI 실증과 평가, 인증 기능을 집적화하는 한편, 행정 전반의 AI 전환을 통해 시민 중심의 스마트 행정도시 구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오만호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